

조선후기 通信使의 일본 출판 및 서적 유통 탐색

- 비외적 측면을 중심으로 -

정 은 영*

차 례

- | | |
|-------------------------------|----------------------|
| 1. 서론 | 2) 長崎를 통한 중국 서적의 유입 |
| 2. 조선후기 통신사가 본 일본의 출판 및 서적 유통 | 3) 서적 유통과 출판의 중심, 書肆 |
| 1) 조선 서적의 무분별한 일본 유출 | 3. 새로운 비외책의 제시 |
| 4. 결론 | |

국문초록

조선후기 통신사는 조선 국왕의 국서를 일본 막부에 전달하고 포로 쇄환 등의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재침략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다시 말해 통신사 파견의 근본적인 목적은 ‘비외’라고 할 수 있다. 비외란 말 그대로 일본(혹은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다는 것이 곧 군사적 방어책을 구축하는 데 한정되지는 않는다. 일본의 정치·외교, 경제, 문화 등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분석해야만 효과적인 비외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에 따라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일본정보를 수집하여 그에 맞는 비왜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통신사가 수집한 정보에는 일본의 출판과 서적 유통에 관한 부분도 있었다. 조선후기 통신사는 大坂, 京都, 江戸 등의 사행 노정지에서 다수의 조선 서적이 유통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임진왜란 중 약탈되었거나 밀무역을 통해 유입되었을 조선 서적을 보며 통신사행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조선의 지리나 兵法,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다룬 많은 서적들이 일본에서 출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은 비왜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한편 長崎를 통해 일본으로 유입된 중국서적은 조선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였으며, 질적으로도 차이가 나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없는 중국 서적들이 일본에는 유통되고 있었다. 조선후기 통신사는 중국 서적의 유입으로 일본 문사들의 문장이 좋아졌는데, 이대로 일본 학문이 계속 성장한다면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으로 유입된 조선과 중국 서적은 서사를 통해 유통되었는데, 일본의 서사는 도서의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판본을 만들어 서적을 발간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조선과 일본 서적의 유입과 서사의 성장은 일본의 학문을 급속히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조선후기 통신사는 이러한 일본의 실상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비왜책을 강구하였다. 조선후기 통신사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비왜는 일본의 학문이 계속 성장하여 禮를 아는 문명국이 되는 것이므로 조선 서적의 일본 유출을 금지하되, 조선의 성리학 서적은 예외적으로 더 많이 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일본의 학문 성장에 맞춰 통신사행원, 더 나아가 조선 지식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일본 학문의 중심지였던 교토의 분위기를 전하며 천황이라는 존재에 주목해야 한다는 비왜책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통신사, 비왜, 서적 유통, 일본 출판, 일본정보 탐색

1. 서론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조선후기 첫 통신사가 1607년 파견되었다. ‘回答兼刷還使’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 幕府에 國書를 전달하고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조선인 피로인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주 임무였다. 그러나 이는 통신사 파견의 표면적 이유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일본의 재침략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당시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 豊臣秀吉이 죽으면서 권력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 되고 있었다. 1603년 徳川家康이 막부를 개창했지만, 大坂에는 秀吉의 아들 秀頼가 여전히 살아있었고 關原합전[關ヶ原合戰]의 패배로 비록 그 세력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秀吉을 따르던 大名이 존재하였다. 일본 권력의 향방에 따라 일본의 재침략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조선후기 통신사는 가능한 한 다양한 일본정보를 탐색·수집해야만 했다.

일본 탐색과 정보 수집은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안정되고 나서도 계속되었다. 1636년 병자사행부터 통신사는 일본 關白 襲職 및 若君 탄생에 대한 하례사절로 인식되었고 더불어 문화사절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 통신사를 대하는 對馬藩나 막부의 경계심이 낮아지면서 통신사행원이 탐색할 수 있는 대상은 더 다양해졌다. 1763년 계미사행의 서기 원중거가 지적했듯 크게는 일본의 지리, 풍속에 서부터 작게는 器皿에 이르기까지 통신사가 일본에서 보고 듣고 읽은 모든 것은 일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정보를 바탕으로 조선은 시시각각 변하는 일본의 상황에 따라 군사적·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처럼 통신사 파견의 근본적인 목적은 ‘備倭’라고 할 수 있다. 비왜란 말 그대로 일본(혹은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다는 것이 곧 군사적 방어책을 구축하는 데 한정되지는 않는다. 정치·경제는 물론 문화에 이르기

까지 일본의 현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후기 통신사의 주요 탐색 대상 중 하나는 일본의 학문이었다. 자신들을 陸賈에 비유하며 오랑캐 일본을 성리학적 질서에 편입시키고 문화적으로 교화하겠다는 호기롭게 일본으로 출발했던 통신사행원들은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처음은 아름다운 일본의 이국적 풍광 때문이었고, 그 다음은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그들의 경제력, 그리고 마지막은 일본인들의 文才 때문이었다.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 문사와의 唱酬을 통해 일본 학문의 성장을 체감하며 그 성장 요인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출판 및 서적 유통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탐색하여 꾸준히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통신사를 매개로 한 조선과 일본 간 학문 교류는 일찍부터 연구되었는데,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양국 사이의 있었던 서적 교류가 연구 대상이 되었다. 사행록이나 필담창화집 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선과 일본 간 서적 교류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찰한 연구¹⁾를 비롯하여 서적 교류가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²⁾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조선 서적의 일본 내 유통³⁾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는 ‘비왜’라는 조선후기 통신사 파견의 근본적인 목적

-
- 1) 김경숙, 『조선후기 한일 서적 교류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23,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8; 구지현, 『17세기 통신사 필담에 나타난 한일간 서적 교류의 모습』,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 2) 진재교,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 임진왜란 이후의 인적 교류와 서적의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한문학연구』 제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이창경, 『조선통신사가 한일출판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 『한국출판학연구』 제63호, 한국출판학회, 2012.
 - 3) 이유리, 『『왜인구청등록』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제37호, 한국서지학회, 2011; 『일본의 서적목록에 나타난 조선본의 출판권 변화 - 17~18세기 초 경도에서 간행된 조선인 편저 유학서를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제52집, 한국서지학회, 2012.

을 다루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통신사행원들이 일본의 서적 출판과 유통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 조선후기 통신사가 새롭게 모색한 비왜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조선후기 통신사가 본 일본의 출판 및 서적 유통

일본과의 국교 재개가 춘추대의에 벗어난다는 지적에 조선후기 통신사는 조선의 학문과 禮로써 오랑캐 일본을 교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회담검쇄환사라는 명칭으로 파견된 세 차례의 통신사는 對馬藩의 통제로 일본 문사를 제대로 만날 수 없었다. 하지만 양국의 외교 관계가 안정을 찾으면서 통신사행원들은 이전보다 자유롭게 일본을 탐색할 수 있었으며 일본인, 특히 일본 문사와의 접촉 기회가 많아졌다.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 문사와의 詩文唱和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더 많은 일본 문사와 교류하며 일본 학문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신사행원들이 생각하기에 일본인의 시는 아직 치졸하고 우스웠지만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 관소로 찾아오는 소년 문사를 보면서,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의 학문이 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 우리나라는 文官이 많지 않고 오직 武官을 귀하게 여겼는데 300년 동안 나라의 풍속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명은 없고 그저 儒官이라 부를 뿐입니다. (중략) 바야흐로 지금은 풍속이 점점 변하여 100년 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官俗은 옛날을 따르는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용모와 의복으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풍속으로 유관이라 부르고 敎令은 모두 俗字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관직을 부르지 않습니다.⁴⁾

4) 『한사수구록(韓使手口錄)』, 8월 26일, “我國文員不多 唯貴武官 三百年來 爲國俗而然耳 故無官名 唯稱儒官耳 (中略) 方今風俗漸革 非如百年之前 然官俗唯隨古何

1682년 입술사행의 부사 이언강은 막부의 유관이었던 人見友元의 방문을 받고 필담을 나누었다. 이언강은 人見友元에게 ‘元老’, ‘유관’과 같은 관제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이에 人見友元은 원로란 일본 武家の 윗자리로, 關白이 정사를 처리할 때 자문을 하고 보필하는 자리라고 설명하였으며, 일본이 대대로 武를 숭상하는 나라여서 문관에 대한 官名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 그저 유관이라고 통칭된다고 대답하였다. 그의 대답은 일견 일본이 여전히 文보다는 무를 더 중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풍속이 이전과 많이 바뀌어 100년 전과는 다르다는 말 속에는 자국의 학문 성장에 대한 人見友元의 자부심이 녹아있었다.

실제 德川幕府는 大坂 전투 이후로 ‘參勤交代制’, ‘一國一城令’과 같은 일련의 권력 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大名은 ‘藩’이라는 독립된 경영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德川幕府는 자기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大名과 幕府 간의 종속관계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공적 상하관계를 강조하였는데, 이 때 유용했던 사상이 바로 성리학이었다. 성리학은 상하 간의 신분질서를 명백히 하였고 주종 간의 의리를 중시하였는데 전국시대의 하극상 풍조를 없애고 권력을 강화하는 이론으로 안성맞춤⁵⁾이었다. 德川家康은 藤原惺窩의 제자 林道春을 太學頭로 삼고 성리학을 官學으로 지정·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 江戸에는 國學을 설립하고 지방에는 私塾을 설치하여 유학자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학문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大名들은 藩의 번영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幕府의 학문 장려 정책에 동의하였다. 幕府의 권력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실시되었던 성리학 수용과 학문 장려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학문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幕府와 藩의 유학 장려만으로는 일본 학문의 비약적인 성장을

妨乎 乃以容貌衣服 不可取人也 故以古俗徒稱儒官 教令皆隨俗字 故不稱官職”

5)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옮김,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6, 20쪽; 김승일, 『토쿠가와(덕천) 막부 시기, 일본의 조선성리학 수용과 그 의의에 대한 일 시각』, 『사학연구』 제100호, 한국사학회, 2010, 660쪽.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 학문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탐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출판 산업 및 서적 유통에 관심을 가졌다.

1) 조선 서적의 무분별한 일본 유출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 학문의 성장 근간에는 자국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다. 멀게는 백제시대의 왕인부터 가깝게는 수은 강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학문을 가르치고 서적을 전해주었기에 지금과 같은 발전이 가능했다는 논리였다. 통신사행원들은 임진왜란 역시 일본의 학문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나라 안에 인출하는 冊板은 흔히 우리나라의 서적을 취해서 반복적으로 간행하는 것인데 태반이 임진년에 서쪽으로 침입하였을 때 얻은 것으로서 저자의 가게에 서적이 가득 찬 것도 또한 많다.⁶⁾

1636년 병자사행의 부사 김세렴은 일본 노정 중 璘西堂, 林道春, 玄蘇 등의 일본 문사와 시문창화를 하였으며, 林道春의 제자로부터는 理氣와 관련된 질문을 편지로 전해 받고 그 답을 해주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김세렴을 놀라게 한 것은 일본 민가에서 아이들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친다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그는 앞으로 일본의 학문이 성장할 것임을 예감, 더 이상 일본인을 오랑캐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국왕 인조에게 아뢰었다. 아울러 김세렴은 書肆를 가득 채우고 있는 서적, 그 중에서 조선 서적을 보고는 일본의 학문 성장에 임진왜란 때 약탈해 조선의 판본과 활자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되었다. 실제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일본은 활판 인쇄를 활발히 하였는데 이는 임진왜란을 통해 유입

6) 김세렴, 『해사록』, 『건문잡록』, “國中印行冊板 多取我國書籍反刊者 太半得於壬辰西搶 市肆書籍 充初亦多”

된 조선의 활자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豊臣秀吉은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조선의 문화재를 약탈해 반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조선으로의 출병에 相國寺의 西笑承兌, 南禪寺의 靈三, 東福寺의 永哲과 文永, 安國寺의 惠瓊 등 한문 지식이 있는 승려들을 諮問으로 함께 파견하였다. 이들은 조선의 각종 서적과 활자를 약탈하였는데, 정유재란 때 일본군 총사령관이었던 宇喜多秀家는 경복궁의 교서관 주자소를 습격하여 조선의 금속활자 20만 자와 인쇄기구, 조선본과 중국본의 서적을 약탈하여 豊臣秀吉에게 진상하였다.⁷⁾ 조선에서 약탈한 활자는 일본의 출판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단적인 예로 1670년의 경우, 출판서적 목록에 오른 출판물이 3,900점이었으며, 이 시기 매년 출판되는 신작의 수는 400~600점⁸⁾이나 되었다.

한편 대마도나 幕府 차원에서 조선 조정에 서적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 역시 일본 내 조선 서적의 유통에 영향을 미쳤다.

- 이미 들어가 버린 왜인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새로 나오는 倭使의 경우에는 마땅히 편의에 따라 잘 대접하여 실망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경상도는 다른 여러 도에 비해 다소 완전하며 왜인에게 줄 料布를 수습하여 공급할 수 있겠고, 그들이 요구하는 인삼, 매, 말, 호랑이·표범 가죽, 서책 등 소소한 토산물은 편의에 따라 변통하여 대략 그들의 마음을 맞추어 주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이미 김시양에게 행회하였으니 인삼, 매, 말 등의 물건은 조정에서 마련하여 보내주어서 일이 생기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⁹⁾

7)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서적·활자 약탈에 대해서는 전경목,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은 문화재 피해상황』,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462쪽; 하우봉, 『16세기말 동아시아 국제전쟁』, 『동아시아의 역사 II』, 동북아역사재단, 2011, 251-252쪽 참조.

8) 황소연, 『도쿠가와 시대의 문학연구』, 보고서, 2015, 179쪽.

9) 『인조실록』 5년 3월 12일(기묘), “既已入去之倭 無如之何 新來倭使 則宜隨便善待 不至於落莫 慶尙道比諸他道 稍爲完全 貢倭料布 可以收拾供給 而所求人參鷹馬虎豹皮書冊小土物 隨便辦出 略副其心似當 故既已行會於金時讓 而人參鷹馬等物

『倭人求請謄錄』 중 일본의 서적 요청이 기록된 가장 이른 시기는 1639년이지만, 그보다 앞서 倭使가 요구하는 물품은 구해주자는 논의가 조선 조정에서 있었다.¹⁰⁾ 앞서 경상감사 김시양은 對馬藩 파견 왜인의 요구로 자신이 晝啓를 작성해 주었다는 장계를 조정에 올렸다. 對馬島主와 調興이 조선 조정에서 胡亂 발생 사실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아 幕府로부터 곤욕을 치루었다고 항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발생한 사소한 오해가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을 은연중에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전쟁 재발의 두려움에 조선 조정은 일본이 요구한 물품을 되도록 구해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때 논의된 물품에는 인삼, 매 등과 더불어 서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 왜사가 經書와 『通鑑』, 『牧隱集』 등의 서책을 요구하니, 상이 주라고 명하였다.¹¹⁾
- 大坂에 서적의 많음은 실로 천하의 장관인데 우리나라 여러 명현의 문집 중에서 왜인이 높이고 숭상하는 것은 『退溪集』 같은 것이 없다. 그래서 곧 집집마다 외고 모든 선비가 필담으로 묻는 조목에 반드시 퇴계집 안의 말을 첫째로 삼았다. 도산서원이 어느 고을에 속하는지 묻는 이가 있었고, 또 선생의 후손이 지금 몇 사람이나 있으며, 어떤 관직에 있는가를 묻기도 하고, 또 선생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것도 묻는 등 그 말이 심히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¹²⁾

당시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았던 幕府에서는 對馬藩을 통해 유학 관련 서적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왜란과 호란으로 서적

自朝廷亦宜措送 俾無生事之患”

10) 이유리, 『『왜인가구청등록』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제37호, 한국서지학회, 2011, 113쪽.

11) 『인조실록』 7년 5월 7일(신묘), “倭使求經書及通鑑牧隱集等書 上命給之”

12) 신유한, 『해유록』, 11월 4일(임신), “大坂書籍之盛 實爲天下壯觀 我國諸賢文集中 倭人之所尊尙者 無如退溪集 卽家誦而戶誦之 諸生輩筆談問目 必以退溪集中語爲 第一義 有問陶山書院 地屬何郡 又曰先生後孫 今有幾人作何官 又問先生生時所 嗜好 其言甚多 不可盡記”

을 구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판본이 유실되었거나 낡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幕府와 대마도의 요구에 응하려고 노력하였다. 동래 부나 경상도에 구청 서적이 없는 경우에는 책판이 있는 지역이나 校書館에 명하여 해당 책을 인출, 장정하여 동래부에 보내기도 하였다.¹³⁾

임진왜란 중 일본에 유입되었거나 전쟁 재발을 막고자 조선 조정에서 보내주었던 조선 서적이 일본 내에서 다량 유통되면서 해당 서적에 대한 일본 문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통신사행원과 일본 문사 간에 조선 서적을 화제로 필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719년 기해사행의 제술관 신유한은 『퇴계집』이 일본 문사들 사이에서 숭상될 뿐만 아니라 널리 읽히고 있음을 알았다. 이를 반영하듯 신유한과 필담을 나눈 일본 문사들은 퇴계 이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관련 질문이 너무나 많아서 자신은 이를 전부 기록할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퇴계집』의 일본 유통은 조선 서적이 일본 학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동시에 조선 조정이 자국 서적의 유통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 왜인이 『退溪集』, 『攷事撮要』를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허락하지 않았다.¹⁴⁾
- 교리 오명항이 文義로 인하여 진달하기를, “통신사가 전하는 바를 듣건대, 故 相臣 유성룡이 지은 『懲愆錄』이 왜국에 유입되었다고 하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엄격하게 법률을 만들어 특별히 금지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廟堂에 명하여 법률을 정하여 엄격하게 금지함을 더하라고 하셨다.¹⁵⁾

13) 이유리, 『『왜인구청등록』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제37호, 한국서지학회, 2011, 117쪽.

14) 『현종실록』 5년 윤6월 3일(계해), “倭人求買 退溪集攷事撮要 不許”

15) 『숙종실록』 38년 4월 22일(갑술), “校理吳命恒因文義達曰 聞信使所傳 故相臣柳成龍所撰懲愆錄 流入倭國云 事極驚駭 今宜嚴立科條 別樣禁斷 上令廟堂 酌定科條 嚴加禁斷”

조선 조정에서는 『고사촬요』, 『여지승람』, 그리고 전대의 사행록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가 수록된 서적의 유출을 금했다. 이와 함께 자국 유학서의 반출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신유한이 자랑스럽게 언급한 『퇴계집』은 이미 50여 년 전 조선 조정에서 반출을 금지했던 서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반출 금지가 무색하게 이미 일본에서는 해당 서적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다. 1655년 을미사행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대마도주가 종사관 남용익에게 『海東諸國記』의 조선 내 출판에 대해 질문을 했던 것이다. 『해동제국기』는 1443년 계해사행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던 신숙주가 국왕 성종의 명을 받아 찬술했는데 일본 天皇과 關白의 世系, 일본 8도 66주에 대한 정보와 거리,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 의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었다. 특히 신숙주의 『해동제국기』는 조선후기 통신사에게 일종의 참고서이자 외교지침서였으며 사행록의 전범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일본측의 『해동제국기』 구청을 걱정한 남용익은 『해동제국기』는 조선에서도 이름으로만 전할 뿐이어서 본인도 본 적이 없다며 상황을 모면하였다.¹⁶⁾

그러나 조선의 기밀 정보를 담은 서적은 일본 내에서 계속 유통되었고 1711년 신묘사행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이 조선에 전해졌다. 신묘사행의 부사 임수간은 일본에서 조선의 역사서, 문집, 지도 등이 모두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적 유출이 부산에 있는 倭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¹⁷⁾고 보았다. 실제 『館守條書』에는 조선에 대한 정보 수집이 왜관의 주요 업무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반출이 금지된 조선 서적이 왜관을 통해 일본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통신사 파견으로 서적 밀반출을 알게 된 조선 조정에서는 조선 서적의 일본 반출을 법령으로

16) 남용익, 『부상록』, 1월 15일(갑오), “義成與紹柏 問貴國有海東紀云 未知尙存否 答以此冊之刊行 在於百數十年前板刊行 不傳已久 吾等只聞名而不見云 則更不詳問”

17) 임수간, 『동사일기』, 『해외기문』, “倭人常住釜館者 大略千餘人 我國書籍則野史輿圖文集 無不購去 其國事蹟 漠然無聞 誠可慨也”

금지하고, 國乘을 반출할 경우 사형¹⁸⁾에 처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다.

- 일찍이 들으니, 우리나라 서적 중에서 『징비록』·『고사촬요』·『여지승람』 등의 책자는 전에 이미 들어왔다 하는데, 지금 들으니 『兵學指南』·『通文館志』가 새롭게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는 다 訓導와 別差 무리가 뇌물을 받고서 찾아 준 것들인데,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의 농간하는 폐단이 이와 같으니, 몹시 분하다.¹⁹⁾

그러나 신묘사행 이후에도 같은 상황은 계속되었는데, 신유한은 『징비록』 이외에도 조선과 일본의 외교를 다룬 김성일의 『해사록』이나 강항의 『간양록』 등이 大坂에서 출판되고 있다며 이것은 마치 적을 정당한 정보를 다시 적에게 고하는 것과 같다고 통탄하였다. 1747년 정묘사행의 종사관 조명채는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조선 서적이 더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그 서적이 『병학지남』과 『통문관지』라는 점을 기록하였다. 그가 언급한 『병학지남』은 조선의 兵書로 武科 會試에서는 이 『병학지남』으로 陣法을 시험하였다. 또 함께 들어온 『통문관지』는 司譯院의 연혁 및 외교상 의절을 수록하고 있어 일본과의 관계에서 조선의 입장을 예측할 수 있는 외교 자료였다. 『병학지남』과 『통문관지』는 단순한 서적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의 군사적·외교적 기밀을 담고 있는 서적으로 국외 반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임수간과 마찬가지로 조명채 역시 이들 서적의 일본 유출에 왜관이 깊숙이 간여했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국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기밀 서적을 뇌물을 받고 일본에 건넨 역관에 대해 분개하였다.

18) 진재교,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 임진왜란 이후의 인적 교류와 서적의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한문학연구』 제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89쪽.

19)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4월 13일(병인), “曾聞我國書籍中 懲毖錄攷事撮要 輿地勝覽等冊子 前已入來 而今聞兵學指南通文館誌 新入此地云 此皆訓別輩受賂 覓給者 而不畏邦憲 此輩之奸弊如此 萬萬絕痛”

1763년 계미사행의 제술관 남옥은 사행록에 조선에서 유입된 서적을 별도로 정리했는데, 전대 사행록에서 언급된 서적 외에도 신숙주의 『保閑齋集』, 권근의 『入學圖』, 김정국의 『警民編』, 이언적의 『九經衍義』, 이황의 『自省篇』, 『啓蒙傳疑』, 『聖學十圖』, 『天命流行圖』, 『啓蒙補要解』, 이이의 『栗谷集』, 『聖學輯要』, 『擊蒙要訣』 등이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황 뿐만 아니라 권근, 이언적, 이이 등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의 저서가 일본에서 다수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당시 일본의 학문 흐름과 조선 서적의 관련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조선 조정의 유학서 반출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유입되는 조선 서적의 규모가 더 커졌음을 말해 준다.

2) 長崎를 통한 중국 서적의 유입

조선후기 통신사가 처음으로 파견되었던 1607년에는 일본과 명 간 국교가 재개되기 전이었다. 豊臣秀吉이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명 정벌을 내세운 데다 冊封使 파견이라는 일본의 강화 요청 조건을 수용했음에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명은 일본과의 국교를 단절하였고 양국 간의 勘合貿易도 폐지하였다. 幕府 개창 후 德川家康은 명과의 무역 재개를 위해 조선의 도움을 구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후에는 기독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쇄국정책을 표방하였다. 하지만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조선과 중국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일본은 長崎와 대마도를 통해 각각 중국 南京, 조선과 교역을 진행하였다.

조선후기 통신사는 長崎를 통한 일본과 중국 간 무역 재개에 대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을 탐색하고 있었던 통신사는 일본에 머물고 있던 중국인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 중국사람 둘이 와서 뵈었다. 역관 등이 그들에게 물어보니, 이들은

福建 사람으로 매매하는 일로 지난해에 와서 장기에 도착했는데 아직 돌아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중국 사람과 南蠻 사람은 무상으로 왕래한다고 한다.²⁰⁾

1607년 정미사행에서는 葉二官이라는 중국인이 江戸의 관소로 통신사를 찾아왔다. 섭이관은 자신을 중국 복건 출신의 상인이라고 소개하며 일본 장수와의 친분으로 양국을 오가며 교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617년 정사사행에서도 복건 출신의 중국인들이 관소를 찾아와 三使가 직접 이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이들을 통해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의 長崎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후 통신사에게 長崎는 ‘중국과 물화를 교역하는 곳’, ‘중국 상선이 닿는 명승지’라고 인식되었다.

조선후기 통신사는 대마도를 통해 조선 서적이 일본에 유입되었듯 長崎를 통해 중국 서적이 일본에 들어왔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유입된 중국 서적이 조선 서적만큼이나 일본 학문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 때때로 한 句, 한 聯이 매우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즉석에서 지었을 때 본 바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나는 南京의 海商들이 매번 서적을 싣고 와서 長崎島에 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順治 이후 江南才子의 시집이 일본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이었다.²¹⁾

통신사행원들은 유교 경전을 읽는 여염의 아이들, 자신들을 만나기 위

20) 이경직, 『부상록』, 8월 27일(己未), “唐人二人來見 譯官等問之 是福建人也 以買賣事 往年來到長崎 時未回還云 唐人與南蠻人 往來無常云”

21) 신유한, 『해유록』, 『문견잡록』, “時有一句一聯之最佳者 視席上所賦 全是天壤 余意南京海賈 每以書籍來販於長崎島 故順治以後 江南才子之詩集 多在日本 而爲我人所未見者

해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관소를 찾아오는 일본의 소년 문사를 보고 일본의 학문 성장이 계속될 것임을 느꼈다. 또한 그들의 文才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하였다. 신유한은 일본 문사의 시에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표현을 보거나 유창한 글을 대하면서 일본의 문사들이 장기를 통해 일본에 들어 온 중국의 시집과 唐宋八大家文抄를 배우고 이를 따라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 대개 長岐島에 배가 통한 이후 유입된 중국의 문적이 많았다. 그 중 뜻이 있는 자는 점점 문필에 능하게 되어 무진년에 와서는 글을 지어 주고받음이 자못 성했다 한다. 이들이 이후로 과연 문장으로 인하여 도를 배워서 학문의 경계에 들어간다면 비록 섬 오랑캐이지만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오랑캐라 하여 끝끝내 버릴 수 있겠는가.²²⁾
- 長崎의 서적이 마침내 통하였으니, 지금 집집마다 책을 읽고 사람마다 붓을 든 것이 십수 년이 조금 넘었다. 생각건대 비루한 오랑캐라고 그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²³⁾

1763년 계미사행의 정사 조엄은 중국 서적과 일본 학문의 성장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長崎를 통해 중국 서적이 일본으로 유입되었고 일본의 문사들이 이를 습득하여 문장으로 표현하니 전대 통신사행원들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중국 서적으로 인해 일본 문사의 문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엄은 일본 문사가 중국 서적을 통해 문장력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道를 이해하고, 그리하여 진정한 학문을 한다면 중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서기 원중거 역시 중국 서적이 일본에 유

22) 조엄, 『해사일기』, 6월 18일(무술), “蓋聞長岐島通船之後 中國文籍 多有流入者 其中有志者 漸趨文翰 比戊辰酬唱頗勝云 此後此輩果能因文而學道 漸入于學問境界 則雖是島夷 可以進於中國 豈可以舟服而終棄之哉”

23) 원중거, 『화국지』 권2, <詩文之人>, “長崎之書遂通 見今家家讀書 人人操筆 差過十數年 則恐不可鄙夷 而忽之也”

입되면서 문사층이 확대되었다며 이전과 같이 그들을 오랑캐로 보고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서적은 그 양과 종류에 있어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 국중의 서적은 우리나라로부터 온 것이 백이라고 말한다면, 중국 南京으로부터 사서 온 것이千이라고 셀 수 있다. 고금의 기이한 글, 百家의 문집이 민간에서 간행된 것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열 배 뿐이 아니다.²⁴⁾
- 漢唐 이래로 전적이 수없이 많거니와, 중국에서 이미 잃은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孔安國『孝經傳』, 梁 王侃의『論語疏』, 唐 魏徵의『群書治要』, 宋 江少虞의『皇朝類苑』로 일일이 들 것도 없습니다. 귀국에도 이런 전적이 전해 옵니까? 삼가 묻습니다.²⁵⁾

신유한은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중국 서적의 규모를千, 조선 서적은 백이라고 표현하였다.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한다면 10배의 차이지만 유통 규모의 차이가 그만큼 확연하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조선에는 없는 서적을 일본에서 발견하거나 그에 관련된 정보를 일본 문사로부터 전해듣기도 하였다. 1747년 정묘사행의 三使는 江戸의 관소에서 태학두 林信充과 그 아들 林信言, 그리고 侍講直學士 藤原明遠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등원명원은 자신이 정몽주, 이언적, 이황의 저술을 읽고 감복하였다며 이들 외에 최근 조선에서 經術과 학예로 문명을 떨치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저술을 남겼는지 궁금해 하였다. 또한『三國史記』와『東國通鑑』,『고사촬요』,『慵齋叢話』 등의 조선 서적을 읽었다며 관련 내용을 질문하기도 하였다. 덧붙여 중국에서도 유실된 여러

24) 신유한, 『해유록』, 『문견잡록』, “國中書籍 自我國而往者以百數 自南京海賈而來者以千數 古今異書百家文集 刊行於闕闕者 視我國不啻十倍”

25) 조명채, 『봉사일본서문견록』, 5월 24일(정미), “漢唐以來 典籍浩瀚 中華之既亡者 我邦多存之 若孔安國孝經傳梁王侃論語疏唐魏徵羣書治要宋江少虞皇朝類苑 不一而足 貴邦亦傳此等之典籍乎 謹問之”

중국 전적을 열거하며 조선에도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지도 몰았다. 표면적으로는 조선 학문에 대한 다양한 물음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藏書 규모와 일본 문헌의 풍부함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조명채는 조선에도 이 같은 책들이 전한다고 대답하였으나, 다음 사행의 제술관 남옥이 藤原明遠이 언급한 중국 서적을 조선에서 보지 못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1748년 당시에 이 서적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²⁶⁾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 전해진 중국 서적 중 통신사를 가장 놀라게 만든 건 단연 『古今圖書集成』이었다.

- 雍正帝가 萬古의 서적을 집성하여 類書로 엮고 이름은 『圖書集成』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만 권이었다. 內府의 힘만으로 활자를 搨印하여 만든 것이라 널리 배포할 수 없었는데, 부유한 상인이 세 질을 구입하여 동쪽으로 건너오게 되었으니, 한 질은 長崎의 관청 창고에 있고 두 질은 江戸로 들어갔다.²⁷⁾

『고금도서집성』은 중국의 천문·지리·의학·종교·문학·군사 등 다양한 지식을 담고 있는 類書였다. 淸 康熙帝때 편찬을 시작하여 雍正帝때 완성했는데 총 권수가 1만권 그 목록만 40권에 달하는 거질의 서적이었다. 그리고 『고금도서집성』은 구리 활자로 각인되어 그 발간 수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조차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는 희귀본이었다. 그런 희귀본을 일본은 세 질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장기를 통한 중국 서적의 교역 규모가 매우 컸으며, 그 입수가 비교적 용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반면 조선은 『고금도서집성』이 나오고 50년이 흐른 1776년이 되어서야 어렵게 한 질을 구입할 수 있었다. 흥한

26) 김경숙, 『조선후기 한일 서적 교류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23,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8, 242쪽.

27) 성대중, 『일본록』, 『일본록』, “雍正輯萬古書籍 撰類書名圖書集成 凡萬卷 以內府之力 活字搨印 未得廣布 富商購三件以東渡 一在長崎官庫 二入江戸”

주의 『智水拈筆』에는 서호수가 謝恩使로 가서 『고금도서집성』을 구매했는데, 그 때 燕京 사람들이 일본은 이미 3부를 구해 간 것을 조선은 이제야 사나며 비웃었다는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²⁸⁾. 이를 통해 양국의 중국 서적 수입의 규모 차이, 유통되는 서적의 질적인 편차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한편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에 조선보다 더 많은 중국 서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이 보지 못한 서적들을 일본에서 읽거나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 창량이 부사가 써 준 서목을 내놓았다. 이른바 『水滸傳』, 『後西遊記』, 『玉支機』, 『玉嬌梨』, 『平山冷燕』, 『肉蒲團』, 『傳香集』, 『夢金苔』, 『掀髯談』, 『金粉惜』, 『催曉夢』, 『濟顛全傳』 등이었다. 창량이 “얻을 수 있는 바에 따라 찾아서 빌려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이는 비단 제가 보고자 할 뿐만 아니라 노야께서 무료한 중에 한번 보고 심심풀이로 삼고자 하십니다. 비록 한두 책이라도 빌릴 수 없을까요. 본 후에 곧 그대로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글을 써서 보였다.²⁹⁾

1682년 임술사행의 부사 이언강은 자신이 보고 싶은 서적의 목록을 적어 자제군관 홍세태에게 전했고, 홍세태는 이를 幕府의 유관이었던 人見友元에게 보이며 목록에 있는 책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언강이 써 준 책 대부분은 明末淸初에 창작된 才子佳人小說, 艷情小說로, 홍세태는 사행 중 심심풀이로 이 책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재자가인 소설과 염정소설은 이미 17세기부터 조선에 유입되어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읽히고 있었는데³⁰⁾ 전대 사행을 통해 일본에 다양한 중국소

28) 이창경, 『조선통신사가 한일출판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 『한국출판학연구』 제 63호, 한국출판학회, 2012, 148쪽.

29) 『한사수구록』, 9월 2일, “出副使所筆之書目 所謂水滸傳後西遊記玉支機玉嬌梨平山冷燕肉蒲團傳香集夢金苔掀髯談金粉惜催曉夢濟顛全傳云云 滄浪書示曰 隨所得 覓借爲幸 此不唯不佞欲見之 老爺無聊之中 欲一覽破寂 雖一二冊 未可惠借耶 見後卽當完璧耳”

설이 유입된 것을 알고 있던 통신사행원들이 조선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작품들을 읽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人見友元과 그의 제자 任公定은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던 『수호지』와 『최효몽』을 바로 빌려주었다.

또 홍세태는 개인적으로 『黃勉齋集』을 빌려 보기를 청하였다. 『황면재집』은 朱子の 제자인 黃幹의 문집으로 일본에 이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홍세태는 對馬藩의 記室 小山朝三을 통해 구해 주기를 여러 차례 부탁³¹⁾하였으나 결국 보지 못했다. 그러다 人見友元이 『황면재집』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홍세태는 조선에서 간행된 『황면재집』에 誤字가 많고 대개 편에 따라 간행하기 때문에 小本이 많으며 일본의 것을 꼭 보고 싶다고 간청하였다. 이 외에도 입수간은 자비를 들여 역사서를 구매했고, 신유한은 일본에서 漢唐書 백 권을 사서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장기를 통한 중국서적 유입은 일본의 학문을 발전시킨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조선후기 통신사에게는 조선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서적을 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서적 유통과 출판의 중심, 書肆

일본의 학문성장과 관련하여 조선후기 통신사가 주목한 또 하나는 일본의 서사였다. 일본의 서사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가장 오래된 서사로 알려진 富春堂이 1603년 『太平記』 40권을 간행한 것으로 보아 17세기 초반에는 서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일본에서는 京都를 중심으로 서사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경도에 이어 江戸와 大坂에 서사가 출현하면서 출판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출판되는 양도 많아졌다.³²⁾

30) 박계화, 『18세기 조선 문인이 본 중국염정소설 -『欽英』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3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2011, 73쪽.

31) 구지현, 『17세기 통신사 필담에 나타난 한일간 서적 교류의 모습』,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535쪽.

32) 이유리, 『일본의 서적목록에 나타난 조선본의 출판권 변화 - 17~18세기 초 京

1636년 병자사행의 부사 김세렴이 일본의 서사에서 唐本이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기록한 이후, 통신사행원에게 일본의 서사는 꼭 방문하고 싶은 장소 중 하나였다.

- 존공의 서사에 진귀한 책이 많이 쌓여있다 들었는데 간절히 한 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행을 돌아보니 자루가 비어 취해서 구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서쪽으로 돌아간 후 책방 창가에서 꿈을 꾸면 분명 奎文館 비단 책갑과 운초 상자 사이를 오갈 것입니다.³³⁾

조선에서도 서사 설립에 관한 논의 끝에 16세기 초 서사가 설립되었지만 이를 통한 서적의 매매가 원활하지 않았다.³⁴⁾ 게다가 두 차례의 전란을 거치며 홍문관에 소장되었던 서적을 비롯하여 춘추관에 보관 중이었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자료도 모두 불타버렸다. 또한 일본군이 조선의 서적과 활자를 약탈하여서 당시 조선에는 세자 侍講에 사용할 경서마저 없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부족한 서적을 보충하기 위해 포상을 내세워 국내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중국으로 간 사신에게 필요한 서책의 구입을 명하였다. 이 시기 개인이 서적을 소장하기는 더욱 힘들었다. 조정에서 중국에서의 도서 수입을 규제하고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면서 서적의 수급 불균형은 심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조선 서적은 물론 중국의 다양한 서적을 볼 수 있는 서사는 통신사행원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대대로 서사를 운영했던 瀨尾用拙齋는 서사 창고에 간행한 서적이 가득 쌓여 있지만 천성이 게을러 다 보지 못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

都에서 간행된 조선인 편저 유학서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52집, 한국서지학회, 2012, 477-479쪽.

33) 『상한훈지』 권 10, 『한객필어』, <九日>, “聞尊書肆多畜寶訣 切欲一覽 而顧此行囊罄竭 無路買取 坡事西歸之後 西窓一夢 必將來往於奎文館 縹帙芸箱之間也

34)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역락, 2007, 35쪽.

자 1719년 기해사행의 서기 장응두는 그 서사를 방문하여 수많은 서적을 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장응두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서책을 사고 싶지만 주머니가 비어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거나 조선으로 돌아가서도 圭文館을 노니는 꿈을 꿀 것이라는 말로 그 간절함을 드러냈다. 서사에 서적이 가득 차 있지만 다 보지 못했다는 일본 서사 주인 말과 일본에서 필요한 서적을 구하고 싶어 하는 통신사의 모습은 일본과 조선의 서적 수급의 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행원들이 일본의 서사에 관심을 표명한 가장 큰 이유는 서사가 단순히 서적을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서적의 출판까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그 중에 書林·書屋이 있어 명패에 ‘柳枝軒’·‘玉樹堂’ 등이라고 써 있었다. 고급의 百家書籍을 쌓아두었는데 인쇄하여 판매하면 다시 사들여 쌓아 두었다. 중국의 책과 우리나라 여러 선현의 글을 편찬한 책이 없는 것이 없었다.³⁵⁾

- 湛長老가 大坂에서 출판된 『星槎答響』 두 권을 나에게 보였다. 이것은 나와 세 서기가 장로와 더불어 주고받은 시편으로서, 출판된 것은 赤關 이전의 작품이요, 그 나머지는 아직 출판을 끝나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계산해 보니 한 달 안에 인쇄된 것이니, 왜인이 일을 즐기고 이름을 좋아하는 습성이 자못 중화와 다름이 없었다.³⁶⁾

일본 서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한 사람은 신유한이었다. 신유한은 大坂에서 서사인 柳枝軒, 玉樹堂을 보았는데 이곳에서 중국과 조선의 다양한 서적을 편찬해서 유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과 세 서기가 以酌菴 장로 性湛와 나는 필담 창화가 채 한 달이

35) 신유한, 『해유록』, 9월 4일(계유), “其中有書林書屋 榜曰柳枝軒玉樹堂之屬 貯古今百家文籍 剗鬪貿販 轉貨而畜之 中國之書與我朝諸賢撰集 莫不在焉”

36) 신유한, 『해유록』, 11월 4일(임신), “湛長老以大坂新刊星槎答響二卷示余 此乃余及三書記與長老答贈諸什 而所刊在赤關以前之作 餘未卒業 然計於一朔之內 剗鬪已具 倭人喜事好名之習 殆與中華無異”

되지 않아 『星槎答響』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유한은 필담창화집의 빠른 출판이 명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인의 습속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것이 중국과 유사하다며 놀라움을 표하였다. 실제 『성사답향』이 간행된 곳 역시 大坂이었다. 당시 大坂은 일본 경제의 중심지였는데, 이런 곳에 유명한 서사가 많고, 필담창화집의 출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일본에서 서적 유통과 출판이 주요 산업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 그 후 서쪽으로 돌아오는 날 나는 두 친구와 함께 琵琶浩 및 長安의 객관을 방문하여 저들의 명망 있고 뛰어난 선비들과 문장의 불꽃을 서로 밝혔으니 필담과 창화한 기록이 책을 이루었다. 이때 남북의 현자들 가운데 편지를 보내 그 기록을 한 번 보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많았다. 나는 글이 매우 서툴러서 일을 기록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 친구를 통해 내 마음에 쌓아놓은 바를 기록하여 『韓客筆語』라 제목을 붙이고 스스로 출판을 도모하였다.³⁷⁾

장응두와 필담을 나누었던 瀨尾用拙齋는 서사의 주인이기 이전에 伊藤仁齋에게 사사한 유학자이자 시인이었다. 통신사가 일본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친구들과 함께 시문창화를 하기 위해 사행원들이 머물고 있던 관소를 찾았고 적극적으로 필담창화에 참여, 자신의 필담 기록을 모아 『韓客筆語』를 편찬해서 간행했다. 뿐만 아니라 1719년 기행사행의 필담창화집을 간행했던 瀨尾用拙齋는 1711년 신묘사행의 필담창화집인 『鷄林唱和集』을 간행하기도 했던 것이다. 『鷄林唱和集』은 총 15권 8책으로 조선 후기 통신사와 관련한 필담창화집 중 가장 거질이다. 통신사가 경유했던 지역별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한 일본 문사의

37) 『상한훈지』 권 10, 「한객필어」, <韓客筆語序>, “後西歸之日 余同二朋 過琵琶及長安客館 與彼名流俊士文焰相赫 其筆談唱和成卷 時南北諸賢託魚雁 欲一見其錄記者亦多 余筆甚拙 而事不能記 因一友人 錄吾胸此之所蘊 題曰韓客筆語 自謨梓事”

수가 115인에 이르는 등 양국 문사 간 이루어졌던 필담과 창화가 망라되어 있다.³⁸⁾ 京都에 있는 서사의 주인이었던 瀨尾用拙齋가 전국에서 이루어진 필담창화를 모아 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일본의 서사가 일본의 학문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일본의 서사에서 조선후기 통신사와 일본 문사 간의 필담과 창화를 빠른 시일 내에 출판했던 건 일본의 문사들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韓客筆語』와 『桑韓墳簞集』의 출판 과정을 보면 신유한의 지적대로 필담창화에 참여했던 일본 문사 瀨尾用拙齋의 자기만족이 큰 이유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韓客筆語』를 보고 이에 만족하지 못했던 일본 문사들이 瀨尾用拙齋에게 편지를 보내 또 다른 필담창화집의 발간을 재촉하였다. 그래서 1719년 통신사행원과 美濃, 尾長 등지의 일본 문사와 조선 문사 간에 주고받았던 필담을 엮어 1720년 『桑韓墳簞集』을 간행되었다. 결국 서사를 통한 필담창화집의 간행은 직접 필담에 참여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본 문사에게 자국은 물론 조선의 학문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잣대가 되었다.

3. 새로운 비외책의 제시

조선과 중국에서 다양한 서적이 유입되고 서사를 통해 주요 판본의 재간행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학문은 나날이 성장하였다. 민간에서는 학문에 힘쓰는 사람들이 늘어나 농부와 서민들도 지방의 사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에 1711년 신묘사행의 부사 임수간은 武를 최고로 여기던 일본이 文教를 숭상하는 나라로 그 운수가 바뀌었다고 평가하였으며 1763년 계미사행의 서기 원중거는 일본을 가리켜 “해중 문명의 고을”이라 칭하였다. 외교 상대국 일본이 교화의 대상이었

38) 구지현, 『필담창화집의 세계』, 보고사, 2011, 226-227쪽.

던 오랑캐에서 조선에 버금가는 문명국가로 거듭나면서 조선후기 통신사는 이에 맞는 비왜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 그 유학을 닦는 선비들이 사람의 떳떳한 도리와 사물의 법칙이 있음을 점점 알게 되어 부녀자와 짓먹이, 천한 사람에게 날마다 선을 권장하니 만약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앞장서서 이끈다면 역말이 빨리 가는 것과 같아서 일본은 아주 바뀔 것이다. 저들이 만약 인의를 알고 염치를 알아, 옛 것을 기뻐하고 지금을 돌이킨다면 이는 단지 그 나라의 다행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이 침략 당할 우환이 더욱 없어질 것이다.³⁹⁾

원중거가 본 일본은 幕府가 일반 백성에게 유학을 장려하고 위정자와 관료가 이를 이끌면서 仁義와 염치를 이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일본의 이러한 변화가 비단 일본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조선과 중국도 침략 당할 걱정에서 벗어나니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이라 평가했다. 즉 일본의 학문이 성장할수록 동아시아의 전쟁 재발 위험은 사라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중거는 별도의 비왜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그것은 古學 중심의 학문 풍토를 성리학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이번 사행 전에 저들이 퇴계 선생을 존경하여 집집마다 『퇴계집』이 있다고 많이 말하였는데 이는 와전된 것이다. 내가 저들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보니 서책이라고는 『징비록』, 『병학지남』, 『고사촬요』 등 약간의 책일 뿐이었다. (중략) 무릇 후에 사행이 올 때는 『성학십도』, 『격몽요결』, 『喪禮備要』, 『童蒙先習』 등은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며, 퇴계와 율곡의 전집은 비록 보기는 어렵지만 그 가운데 시사에 미치지 않는 것을 각각 서너 권씩 택하여 전파하고 배포하도록 허락함이 옳다.

39) 元重舉, 『和國志』 권1, <中國通史征伐>, “其儒士者 漸知有人彞物則之懿嬪孺下賤 日勸於善 如有在位者倡而率之 則置郵之速 惟日本爲甚易 被若知仁義識廉恥 悅古而反令 則不但其國之幸 我國與中國益不見寇掠之患”

대개 저들 중 논설이 미처 이르지 못한 바는 오직 정주의 학문이다.⁴⁰⁾

幕府의 유학 장려는 오히려 일본 성리학의 쇠퇴를 야기하였다. 성리학이 關白의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사상의 왜곡이 불가피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원시공맹유학으로 돌아가자는 古義學과 古文辭學이 伊藤仁齋와 荻生徂徠에 의해 주창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일본 문인의 지지를 받아 1716년 이후 幕府와 諸藩에 고용된 문사 중 仁齋學派와 徂徠學派의 문하생을 더한 수는 성리학과의 수를 넘어섰다.⁴¹⁾ 또한 중국이나 조선과는 다른 ‘日本文’을 강조한 8대 關白 吉宗이 荻生徂徠를 幕府의 侍講으로 삼고 私塾의 건립을 지원하면서 일본 내에서 고학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원중거는 일본이 진정한 문명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禮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程朱의 학문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문인 가운데 학문적 역량이 가장 부족한 이들이 바로 태학두를 위시한 성리학자들이었다. 이에 원중거는 조선 조정의 금서정책과는 다른 비왜책을 제시하였으니, 바로 조선의 성리학 서적들을 일본에 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원중거는 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에는 조선의 성리학 서적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연히 조선 서적의 해외 반출을 막을 것이 아니라 時事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책을 선별해서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조선 서적을 선별적으로 반출하되, 유학서는 더 많이 유통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시문창화를 통해 일본 문사의 학문적 역량을 몸소 경험한 조선

40) 원중거, 『승사록』, 6월 14일(갑오), “前此多說 彼中尊退溪先生 家家有退溪集 甚傳訛也 自我入彼書冊 卽懲懲錄兵學指南考事撮要等若干西耳 (중략) 大抵後使行時 聖學十圖擊蒙要訣喪禮備要童蒙先習 不可不持入 退栗全集雖難與看 擇其中不及時事者 各數三卷 許使傳布可矣 蓋彼中論說所未及到者 唯程朱學問”

41) 서신호, 「전근대 일본사회의 교육제도와 이념 - 幕府설립의 官學, 昌平坂學問所를 중심으로 -」, 『교육문화연구』 제15-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9, 142쪽.

후기 통신사는 후대 통신사행원과 자국 문사들의 실력과 일본 문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 그러나 저들의 문학이 예전과 같지 않으니 좇으며 옆에서 몰래 비웃는 자가 없었는지 어찌 알겠는가. 무릇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자랑을 했으니 능히 부끄러움이 되고, 지엽적인 것에 빠져 그 스스로 지켜야 할 바를 잃었으니 경박한 일이요, 허물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두루 드러냈으니 졸렬한 것이다. 세 가지 모두를 범함이 이와 같으니 그것을 나라를 빛냈다고 이르는 것이 가한가. 생각할수록 회한이 매우 크다. 글을 써서 후배의 경계로 삼는다.⁴²⁾

• 그러나 신분이 낮아 견문이 없는 자는 치우쳐 구하지만 만약 안목이 있는 자라면 詩文은 구하되 書畫를 구하는 건 드물다. 物雙栢과 같은 자는 우리나라 사람의 시가 거칠어서 죽히 본받기 부족하다며 비웃고는 와서 구하지 않았다. 무릇 그 수용한 데에서 거칠고 조잡한 말들을 보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오랑개와 수용할 때는 마땅히 알고 해야지 급하게 해서 안 됨을 알 수 있다.⁴³⁾

전대의 서기들과 달리 성대중은 자신의 통신사행록에 시를 수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행 일기 말미에 쓴 위의 글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성대중을 비롯한 서기와 제술관은 전대 사행록을 통해 일본의 학문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으로 떠나기도 전에 일본의 고학과와는 시문을 나누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는 등 노골적으로 조선이 곧 소중화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고는 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이 실제로 만난 일본의 문사들은 생각보다 학문적 역량이 뛰어났다. 이에 비해 통신사행원들은 경유지 곳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수

42) 성대중, 『일본록』, <書東槎軸後>, “然彼中文學 非昔日之叱 安知無從傍窺笑者也 夫夸於不知者 以爲能恥也 鷙於枝 失其所自守佻也 出其而徇諸人拙也 三者吾皆犯之如是 而謂之華國可于 思之悔恨甚矣 書爲後輩之戒”

43) 남옥, 『일관기』, 『충기』, <글과 그림>, “然下賤無所見者偏求之 若其有眼者求詩文 而罕求書畫 如物雙栢者 以韓人之詩 草率不足法笑之而不來求 盖見其酬應潦率之語 而驅之於一斜 以此知應副蠻人 宜認而不宜銳也” 源率

백 명의 일본 문사들과 창수를 하며 기계적으로 시문을 쓸 수밖에 없었다. 북명 자리에서 국왕 영조의 하문에 2,000수가 넘는 시를 지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서기와 제술관에게 일본 문사와의 시문 창수는 노동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대중에게 사행 노정에서 지은 시는 부끄러운 것이요, 혹 좋은 작품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문재를 자랑한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같은 의미에서 남옥은 荻生徂徠를 위시한 일본의 古學派 문인들이 이미 통신사의 문장을 비웃으며 구하지 않았다고 성대중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자각하였다. 이에 남옥은 이러한 고학파의 평가는 조선 문사의 글 중에서 거칠고 조잡한 말들만을 보고 내린 성급한 판단이라며 반박하면서도 성대중과 마찬가지로 일본인과의 필담창화에 진지하게 임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 대동의 문운이 더없이 성대하다. 대개 古文辭를 읽을 줄 안 후에야 성인의 도를 알 수 있다. 만약 고문사를 알지 못하면 古書를 읽을 수 없는데 어찌 古先·성왕의 도를 알겠는가? (중략)아! 슬프다. 野口氏가 조선 제공들의 글을 보배로 여긴 것은 그것이 이방인의 수필이기 때문이다. 어찌 도를 논한 것이 마땅하다고 알아서였겠는가. 아! 우리 대동의 문운은 성대하다.⁴⁴⁾

1747년 정묘사행의 서기 이봉환은 <與阪城膳宰野口氏文>에서 野口氏가 전대 사행에서 통신사행원이 남긴 시목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을 알고 그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일본의 학문 성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

44) 『화한창화록』 권 下, <一日阪城膳夫野口氏 携朝鮮李濟庵所與之書 以示我 不佞 讀之 率其所論 蓋譏我邦操觚之士 徒事詞章而無實學也 不佞前日得謁于館中 允多 贊詩來乞和者矣 而未嘗遠談先王之道也 且彼邦之學者深信思孟程朱勝於孔子也 我邦學者知思孟之有弊 程朱之多差 則何與彼邦人怒目杭衡以追朱陸鵝湖之爭乎 夫君子無所爭 爭則何以異於思孟程朱哉 故無與論道者也 不佞自忘固陋 竊述其意 以示諸同志如左>, “大東之文運 莫盛焉 蓋能讀古文辭而後 可知聖人之道 若不識 古文辭 則不能讀古書 爲知古先聖王之道哉 (中略) 噫嘻悲哉 而野口氏寶朝鮮諸公 之書者 以其異邦人之手筆也 豈知論道之當否哉 嗚呼 我大東文運之盛也”

러나 그 중심이 정주학이 아닌 고학인 것을 비판하고 일본의 문사가 사장만을 섬기는 폐단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源東郭은 조선의 문사들은 思孟, 정주가 공자보다 낫다고 믿고 있지만 일본의 문사들은 사맹에게 폐단이 있고, 정주에게는 착오가 많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荻生徂徠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문사학의 역사와 의의를 논하며 오히려 고문사를 알지 못하면서 어찌 성왕의 도를 알겠느냐며 조선의 학문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일본을 ‘大東’이라 칭하며 자신들의 학문이 성대하다고 자부심마저 표출하였다.

이봉환과 源東郭의 글은 程朱를 숭상하던 조선의 지식인과 성리학의 폐단을 지적하며 나타난 일본 고학과의 이념 논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양국의 학문 풍토 차이에서 기인한 갈등 정도로만 치부할 수 없다. 고문사학과 일본의 주류 학문으로 떠오르기 이전부터 통신사의 학문적 역량에 대한 회의와 비판은 있었기 때문이다. 1682년 통신사와 창수를 했던 人見友元和 그 제자 任公定은 300명의 통신사행원 중에 문재가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자제군관 흥세태를 두고는 시문을 나누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흥세태는 일본 문사와의 필담에서 조선을 小中華라고 칭하며 그 자부심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였다. 결국 후대 사행원에게 당부의 말을 남긴 성대중이나 통신사행에 참여하는 문사를 선발할 때 문재와 식견 외에도 청렴이나 風儀를 살펴야 한다는 원중거의 주장은 모두 일본의 비약적인 학문 성장을 직접 목도한 조선후기 통신사행원의 자기반성 혹은 각성이자 일본 상황을 철저하게 고려한 대응책이었다.

이와 함께 조선후기 통신사가 일본의 학문 성장과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한 대상은 天皇이었다.

- 시는 비록 가소로우나 즐겁게 頌祝하는 마음은 지극하였다. 이른바 冕旒란 곧 그들의 天皇인데, 그의 눈에 한 번 보이는 것을 일본인들이 영화로운 명예로 알고 있으니, 황제의 귀함을 비로소 알겠다. 다만

倭皇이 문자를 해독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烏山集』 중에 지금 天皇의 御筆을 매우 칭송하는 시가 있으니, 왜황이 글을 잘 짓고 글씨 쓸 줄을 알아서 그 臣民의 추앙하는 바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⁴⁵⁾

조선 지식인에게 天皇은 자신의 신하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그 밑에서 朱印章이나 찍어주며 목숨을 연명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조선후기 통신사가 만난 문인들, 특히 京都의 문인들은 학문의 영도자로서 天皇을 존경하고 있었다. 신유한은 烏山碩輔가 저술한 『芝軒集』을 보고 烏山碩輔가 일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문사라고 극찬하였다. 또한 大坂에서 얻은 『지헌집』을 江戸에까지 들고 갔는데 이를 알게 된 烏山碩輔의 제자 戶田方弼이 신유한에게 책의 서문을 부탁한다. 신유한이 흔쾌히 이를 수락하고 서문을 써서 보내자, 烏山碩輔의 제자들이 잔치를 열고 그 기쁨을 시로 지어 다시 신유한에게 보냈다. 신유한은 『지헌집』을 天皇에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을 영예로 표현한 河間의 시를 보고 天皇과 일본 학문의 관계를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徳川幕府는 關白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禁中並公家諸法度>를 만들어 天皇과 皇族의 삶을 규제했다. <禁中並公家諸法度>의 핵심은 天皇의 정치 참여를 차단하고, 그 활동 범위를 학문과 예술로 제한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자식에게 양위한 天皇은 학식을 갖춘 승려 밑에서 수학하고는 했었다. 그 영향으로 天皇이 살고 있었던 京都는 학문의 중심지이자, 일본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서적을 간행하는 출판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 平安 사람들은 명분과 절의를 숭상하고 기상과 의로움을 좋아하여 집집마다 독서를 하므로 선비가 많다. 항상 江戸가 武人인 것을 배척하

45) 신유한, 『해유록』, “詩雖可笑 而極道權頌之情 所稱冕旒 卽其天皇 而能以一經其眼 爲國人榮名 始知皇帝之貴矣 第未聞倭皇解文字與否 而烏山集中 有盛稱今皇 御墨之詩 蓋有文翰喜詞華 爲其臣民所仰者而然歟”

였다. 그 말에 江戸의 일 또한 심히 두렵고 꺼리지는 않는다고 한다.⁴⁶⁾

• 한 나라의 권세가 오로지 關白에게 귀속되면서 倭皇을 다만 弁髦처럼 여겼다. 그러나 오히려 근심이 되어 京尹을 두어서 감시하고 해마다 지킬 병사 삼만 명을 보내면서 말로는 호위하러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방어하려는 것이다. 서경의 백성들이 모두 분개하여 불평하면서 혹 말하기를, “天皇으로 하여금 군주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關白을 제거하는 것은 곧 손바닥 뒤집는 사이에 있다.”라고 하였다.⁴⁷⁾

幕府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본의 학문이 성장할수록 天皇은 일본 문사의 존경을 받으며 일본 학문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京都의 문사들은 關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통신사행원들에게 자신들이 關白에게 존경의 예를 다하는 것은 단순히 陽尊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였다. 또한 京都의 백성들이 關白을 끌어내리고 天皇에게 정치적 실권을 돌려주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듯 쉬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의 학문 과 天皇의 연관성에 대해 신경을 썼다.⁴⁸⁾ 특히 1763년 계미사행의 경우 정사 조엄에서부터 제술관과 서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일본의 학문 성장과 관련하여 天皇의 영향력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결국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의 학문 성장은 일본의 민심을 關白에서 天皇으로 되돌려 놓았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보는 조선으로 전해져 향후 펼쳐질 일본의 정치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개되었다.

46) 원중거, 『화국지』, 「풍속」, “平安人尙名節好氣義 家家讀書多儒士 常斥江戸爲武人 其言江戸事 亦不甚畏忌”

47) 성대중, 『일본록』, 「일본록」, <西京>, “一國之柄專歸關白 而倭皇直弁髦如也 然猶以爲慮置京尹以監之 歲送戍兵三萬名曰衛之 其實防之 西京士民皆憤惋不平或曰 使天皇而中主掃除東武 直反手之間也”

48) 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방식과 일본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96-97쪽.

4. 결론

조선후기 통신사는 자신이 듣고 보고 느낀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자신들이 탐색한 이 정보가 치욕스러웠던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임을 자각하였다. 그래서 통신사행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일본 서적을 탐독하며 일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 알아가는 그 과정은 결국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의 학문 성장을 통해 조국 조선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고 또 반성하였으며 새로운 비왜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의 출판 및 서적 유통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던 조선 서적을 보며 일본의 학문 성장에 조선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약탈된 조선의 활자와 서적은 幕府의 유학 장려와 맞물려 일본의 학문 성장을 주도했으며, 『퇴계집』으로 대표되는 조선 성리학은 일본 문인들에게 수용되어 숭상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통신사행원들의 학문적 자부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조선의 지리, 국방, 외교와 관련 있는 민감한 정보가 아무거리낌 없이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에 조선후기 통신사는 관련 정보를 사행록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조선에 전했으며 조선 서적의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령을 이끌어냈다.

한편 長崎를 통해 일본으로 유입된 중국서적은 조선의 수 십 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질적으로도 차이가 나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없는 중국 서적들이 일본에는 유통되면서 이에 대한 조선후기 통신사의 관심도 커졌다. 조선후기 통신사는 중국 서적의 유입으로 일본 문사들의 문장이 좋아졌는데, 이대로 일본 학문이 계속 성장한다면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長崎를 통한 중국 서적의 유입은 통신사

에게 조선에서 구할 수 없었던 중국 서적을 보고 또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본 학문의 성장 동인이 되었던 조선과 중국의 서적 유통은 서사의 등장으로 더 원활해졌다. 일본의 서사는 자국의 도서뿐만 아니라 조선과 중국의 도서까지 판매를 하고 있으며, 도서의 단순 매매에 그치지 않고 판본을 만들어 서적을 발간하여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서사의 활성화는 일본의 학문 전반을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조선후기 통신사의 일본 출판 및 서적 유통에 대한 탐색은 하나의 일본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비왜책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가장 이상적인 비왜는 일본의 학문이 계속 성장하여 禮를 아는 문명국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학문 성장은 성리학이 아닌 고학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선 일본 내 성리학자들의 학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조선의 성리학 서적들을 일본에 전하고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문사의 재능이 향상되고 있었으므로 통신사로 파견되는 문인의 선발에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통신사행원들의 일본 문사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의 학문 및 출판 산업의 성장에서 天皇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天皇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비왜책도 제시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의 출판 산업과 서적 유통 상황을 탐색하여 일본 학문이 단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탐색 정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비왜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비왜책은 이후 조선의 대일본 외교 정책에 반영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조선후기 통신사가 전한 일본 출판 및 서적 유통에 대한 정보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전해져 조선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를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구지현, 『필담창화집의 세계』, 보고서, 2011, 226-227쪽.
- _____, 「17세기 통신사 필담에 나타난 한일간 서적 교류의 모습」,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527-551쪽.
- 김경숙, 「조선후기 한일 서적 교류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23,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8, 227-259쪽.
- 김승일, 「토쿠가와(徳川) 막부 시기, 일본의 조선성리학 수용과 그 의의에 대한 일 시각」, 『사학연구』 제100호, 한국사학회, 2010, 637-670쪽.
- 박계화, 「18세기 조선 문인이 본 중국염정소설 -『欽英』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3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2011, 63-99쪽.
- 서신호, 「전근대 일본사회의 교육제도와 이념 - 幕府설립의 官學, 昌平坂學問所를 중심으로 -」, 『교육문화연구』 제15-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9, 129-157쪽.
-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역락, 2007, 35쪽.
- 이유리, 「『왜인구청등록』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제37호, 한국서지학회, 2011, 105-135쪽.
- _____, 「일본의 서적목록에 나타난 조선본의 출판권 변화 - 17~18세기 초 경도에서 간행된 조선인 편저 유학서를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제52집, 한국서지학회, 2012, 473-502쪽.
- 이창경, 「조선통신사가 한일출판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 『한국출판학연구』 제63호, 한국출판학회, 2012, 141-161쪽.
- 전경목,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은 문화재 피해상황」,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462쪽.
- 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방식과 일본담론 연구」, 부산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211쪽.

_____, 『『일본록』에 나타난 대일지식 생성 연구』, 『어문학』 제122집, 한국어문학회, 2013, 461-497쪽.

진재교,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 임진왜란 이후의 인적 교류와 서적의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한문학연구』 제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73-114쪽.

하우봉, 『16세기말 동아시아 국제전쟁』, 『동아시아의 역사 II』, 동북아역사재단, 2011, 201-269쪽.

한태문, 『신유한의 『해유록』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제26집, 동양한문학회, 2008, 449-480쪽.

황소연, 『도쿠가와 시대의 문학연구』, 보고서, 2015, 179쪽.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옮김,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6, 20쪽.

<Abstract>

The Korean Diplomats' Investigation of the
Japanese Publishing and Book Distribution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 Focusing on
Bi-Wae

Jeong, Eun-Young*

Tongsinsa, the Korean diplomats, operating in the late years of the Joseon period, were sent to Japan with the aim of delivering the Joseon king's letter to the shogunate and addressing the pressing diplomatic agendas such as the repatriation of the war prisoners. In fact, however, their main duty was to assess the possibility for another invasion by Japan and figure out the Joseon response to it. In other word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dispatch of the diplomats was *bi-wae*, which literally means preparing against the incursions from Japanese (*wokou*, Japanese pirates). However, preparing against Japanese incursions was not limited to setting up military defenses. Effective preparations against the Japanese incursions could be set up only through examining and analyzing diverse aspects of Japan such as her politics, foreign relations, economy, and culture. Accordingly, the diplomats who operated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collected intelligence on Japan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presented ideas for preparing against Japanese incursions with a view to accurately

*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sping the situation in which Japan found itself.

But, the information which the diplomats collected included the information on the publishing and book distribution in Japan. The diplomats in the late Joseon period witnesses the distribution of a large number of Joseon books in towns that the diplomatic mission traveled through such as Osaka, Kyoto, and Edo. When they found Joseon books which probably arrived in Japan through plundering committed during the Imjin War or through smuggling, the diplomats expressed concerns. Especially when they saw a lot of books treating the geography of military strategy of Joseon and her diplomatic issues with Japan, it highlighted the need to prepare against Japanese incursions. So, the diplomats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reported what they witnessed to the royal court of Joseon, ensuring the prohibition of the delivery of Joseon books to Japan except those on Confucianism. Meanwhile, the academic growth of Japan led the diplomats give a hard look at the reality and work to come up with preparations against Japanese incursions. So, focusing on the contemporary Japan which emphasized academicism more than military force, some people suggested that extra preparations against Japanese incursions would be unnecessary. To the contrary, however, other people argued that the abilities of the diplomatic delegation members as well as the intellectuals of Joseon should be upgraded in step with the academic and scientific growth in Japan, or suggested preparations against Japanese incursions by paying attention to the existence of the emperor while describing the atmosphere in Kyoto, the contemporary academic center of Japan.

Key Words: diplomat, Bi-Wae(preparations against Japanese incursions), book distribution, Japanese publishing, inquiry into intelligence on Japan

■ 논문접수 : 2019년 3월 20일

■ 심사완료 : 2019년 4월 3일

■ 게재 확정 : 2019년 4월 12일

